

〈産學共同세미나〉

21C 濟州道, 어떻게 對備해야 하나

1995年 2月 24日 (金) 13:30

濟州商工會議所大會議室

主 題 發 表

- I. 21C 아시아·태평양地域의 觀光發展과 濟州道の 役割
- II. 水·海洋資源開發과 濟州道 位置
- III. 濟州企業의 世界化 戰略

세미나 日程 (13:30~17:20)

13:30

- 開 會 辭
- 主 題 發 表 及 討 論

13:50~14:50

(第1主題) 21C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관광발전과 濟州道の 役割

發表: 최승담(교통개발연구원 관광연구실장)

司會: 고남욱(제주대학교 교수)

討論: 장성수(제주대학교 교수)

백홍관(제주여행사 대표이사)

14:50~15:50

(第2主題) 水·海洋資源開發과 濟州道の 位置

發表: 고유봉(제주대학교 교수)

司會: 김태보(제주대학교 교수)

討論: 오윤근(제주대학교 교수)

김대순(제주교역 대표이사)

15:50~16:50

(第3主題) 濟州 企業의 世界化 戰略

發表: 좌승희(한국개발원 연구위원)

司會: 고재건(제주대학교 교수)

討論: 현학순(제주대학교 교수)

양승홍(천일목재사 대표)

16:50~17:20

綜 合 討 論

進行: 김태보(제주대학교 교수)

17:20

閉 會

第 1 主 題

21세기 아·태지역 관광발전과 제주도의 역할

목 차

1. 머리말
2. 아·태지역 관광의 특성
3. 아·태지역 관광발전과 제주관광
4. 제주도의 과제

최 승 담

(교통개발연구원 관광연구실장)

I. 머리말

- 아·태지역^{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서 아·태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1992년의 경우 유럽(40%)과 아·태지역(41%)이 비슷한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의 경우 유럽지역의 비중은 30%로 감소하고 아·태지역의 비중은 52%로 증가하여 유럽과 아·태지역간의 균형이 무너질 것으로 추정됨(표 1).
 - 아·태지역 국가중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의 한국, 중국, 홍콩, 대만시장의 비중증대가 매우 두드러질 것임.
- 아·태지역은 관광부문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바, 거대한 관광객 수용지역이자 관광객 송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지역의 문화적인 독특성과 이질성으로 인해 역내국가 뿐만 아니라 역외국가들에게 매력있는 관광목적지가 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이지역으로 부터의 여행객수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
 - 아·태지역의 관광산업은 세계관광산업 성장률(4%정도)의 갑절에 가까운 연간 7-9%씩 성장하고 있으며 이같은 성장세는 21세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아·태지역의 관광은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한국의 관광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던 관광수지도 '91년 부터 적자로 발전, '94년의 경우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고 적자폭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주) 아·태지역의 범위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될수 있음.

본고에서 제시하는 통계치의 기준이 되는 아·태지역의 범위도 자료의 출처에 따라 다소 상이함. 단 본고의 기본흐름은 APEC의 기구화를 계기로 아·태협력이 APEC을 중심으로 활성화 될 것을 고려하여 APE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였음.

- 제주도의 경우는 '90년 이후 외래관광객을 포함한 내국관광객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 관광객 증가율 저조의 주요원인은 해외여행 자유화, 일본인에 대한 NO-VISA 제도 실시 등으로 기존 제주도의 독점권이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관광목적지로서 제주의 경쟁력 상실에 대한 위기위식의 결여와 함께 제주관광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개발 및 과감한 투자도 미흡함.
- 본고에서는 21세기에 있어서 세계관광의 중심이 될 아·태지역 관광의 특성을 살펴보고, 아·태지역의 관광발전이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및 제주도의 향후과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II. 아·태지역 관광의 특성

1. 아·태지역의 관광발전

- 전세계 외래관광객중 아·태지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외래관광객의 수는 1970년에 159백만명에서 1989년에 414백만명으로 2.6배 증가하였음. 하지만 동기간에 아·태지역 방문객은 44백만명에서 137백만명으로 3.1배 증가하였으며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8.1%에서 33.2%로 증가하였음.
 - 반면 유럽지역의 관광시장 점유율은 1970년에 70.1%에서 1989년에 62.9%로 감소하였음.
- 관광외화수입차원에서의 아·태지역의 관광성장율은 외래관광객 유치성장율보다 훨씬 높음.
 - 아·태지역 관광외화 수입액은 1970년도의 6,395백만달러에서 1989년에도 99,293백만달러로 15.5배 증가하였음.

- 관광외화 수입차원에서 아·태지역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년도의 35.7%에서 89년도에는 47.4%로 증가하였음. 반면 유럽의 시장점유율은 1970년도의 61.6%에서 1989년도에는 49.7%로 감소하였음.
- 아·태지역의 관광성장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 EIU(1990) 분석에 의하면 2001년도까지의 아·태지역의 외래관광객 유치성장율은 7.0%로써 세계평균관광성장율을 상회할 것이라고 함.
 - 아·태지역국가중 특히 하와이,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들의 성장율이 높게 예상되는 반면 한국의 예상 성장율은 3.5%에 불과하여 평균성장율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표 2>.

2. 아·태지역 관광발전의 주요 요인

가. 지역내 잠재관광계층의 확산

- 아·태지역 경제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아·태지역 GNP의 비중이 전세계 GNP의 41%(80년)에서 50%(90년)로 증가하였음.
 - 수출비중은 29%(80년)에서 38%(90년)로 증가하였음.
- 신흥 부유층 형성에 따라 잠재해외관광계층이 확대되고 있음.

나. 항공교통여건의 개선

- 지역내 신규항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항공여행 시장 점유율이 과거 10년간 2배로 증가하였음.
 - 아·태지역 항공수요는 2000년까지 연평균 10%의 성장을 보일것임.
- 대규모 거점공항(HUB)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싱가포르 창히 국제공항
 - 홍콩 신공항

- 태국 돈무안 공항
- 한국 영종도 신공항

다. 해외여행관련 규제의 완화

- 각국정부는 해외여행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있음.
-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이후 특히 대만, 일본, 한국 등으로 부터의 해외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음.

라. 각국의 Inbound 관광진흥 정책

- 외화획득원으로써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방문의 해 행사 등의 대형 이벤트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아·태지역 여행행태의 특성

가. 관광목적 여행객 및 지역내 여행객 비율의 증가

- '60년대 아·태지역 여행객은 대부분 업무목적 여행이었으나 순수관광목적 여행객이 증가하여 '90년대에 있어 일본 및 싱가포르지역 방문자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여행객(75%)가 관광목적임.
- '60년대의 경우 이지역 여행객의 56%가 지역내 여행객이었으나 '80년대 말에는 64%가 지역외 여행객임.

나. 패키지 투어 상품의 선호

- 아·태지역 방문객의 약 1/3이 패키지 투어를 이용함.
- 패키지 투어 여행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초기 해외여행객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으로 높기 때문임.

다. 동료중심의 그룹여행

- 가족여행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남녀가 분리된 직장동료들 중심의 그룹여행이며 남성여행자가 여성여행자 보다 훨씬 많음.

라. 높은 도시 관광비율

- 아·태지역 방문객의 2/3가 주요도시에 머물고 있음.
- 도시관광의 경우 체재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나 쇼핑비율이 높아 관광객 1인당 1일 개별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높음.

III. 아·태지역 관광발전과 제주관광

1. 아·태지역 관광발전은 제주관광발전의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임.

- 아·태지역 관광송출시장의 성장으로 제주도의 잠재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하지만 각국이 전국적으로 Inbound 관광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제주도의 경쟁상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향후 제주관광은 더욱더 치열한 경쟁을 요구받게 됨.

2. 아·태지역 국가와 제주도는 협력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아·태지역 국가간 관광발전을 위한 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협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실익을 추구할 수 있음.
- 선진기술의 습득
 - 관광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한 전문성의 제고는 관광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
 - 교류협력은 선진관광 Know-how 습득의 주요 수단임.

- 제주도의 관광매력도 제고
 - 주변국가들과의 관광목적지대(Destination Zone) 형성을 통하여 지역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음.
 - 주변국가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공동여행루트 형성 및 공동 홍보사업의 추진 등 보완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음.
- 역내 관광교류 촉진
 - 지역내 관광교류의 촉진 및 여행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국경통관절차의 간소화, 보건위생 관련 여행객의 권리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 하지만 제주관광발전이 아·태지역 국가들에 비하여 침체될 경우 제주도는 협력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관광목적지로서의 상대적인 위상도 급격히 하락할 것임.

3. 제주도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주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여야 함.

- 향후 제주도가 아·태지역내의 주요 관광목적지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및 경쟁은 필수적이며 협력 및 경쟁의 성공여부에 의하여 제주관광의 위상이 정해질 것임.
- 협력 및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제주도는 적극적인 관광진흥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관광진흥정책의 유보는 퇴보를 의미하며, 이경우 제주도는 기회의 손실로 향후 점점 더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함.

IV. 제주도의 과제

1.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

가. 우선협력국가의 선정

1) 우선협력국가 선정 기준

- 역내 주요관광 송출 선진국가
 - 선진기술의 도입
 - 시장정보수집을 통한 시장확대 도모
 -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등
- 역내 제주도의 주요관광 시장
 - 여행관련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편의성 제고
 - 시장특성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시장의 확대 도모
 - 일본, 대만, 미국, 홍콩 등
- 관광수용량이 많은 인접 국가
 - 관광목적지역(Destination Zone) 형성을 통한 제주도의 매력도 제고
 - 공동 여행루트 개발
 -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일본

2) 우선협력국가의 선정

- 우선협력 국가 선정을 위한 3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 미국, 대만, 홍콩이 협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기술관광 관련통계의 미비로 분석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최근 Inbound 관광의 급속한 성장 및 동부아시아지역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감안 추가하였음.

나. 주요국가별 협력 구상

1) 일본

- 협력의 기본방향

- 관광마케팅 기술의 도입
- 기존관광수요의 유지 및 확대
- 관광객의 편의성 제고

- 주요 협력사업의 예

- 지역차원의 한·일 관광진흥회의 활성화
- 관광연계상품 공동개발 및 공동홍보
- 학생수학여행단 상호 교환
- 관광시설물 공동개발(대규모 휴양지, 호텔 등)

2) 미국

- 협력의 기본방향

- 관광마케팅 기술의 도입
- 신규관광수요의 확대

- 주요 협력사업의 예

- 제주도와 하와이 관광전문기구(대학, 연구소, 정부기구 등)간의 인력교류
 - 한국동란 참전용사 유치사업
 - 자매도시결연 및 관광교류 사업 활성화

3) 대만

- 협력의 기본방향

- 협력을 통한 상호보완관계 형성
- 과거 관광수요의 회복 및 확대 유치

- 주요 협력사업의 예

- 지역차원의 한·대만 관광진흥회의 활성화
- 학생수학여행단 상호 교환

4) 홍콩

- 협력의 기본방향
 - 관광마케팅 기술의 도입
 - 신규관광 수요의 확대
- 주요 협력사업의 예
 - 연계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홍보
 - 크르주 상품 개발

5) 중국

- 협력의 기본방향
 - 잠재경쟁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상호보완관계 구축
 - 잠재관광객의 유치 확대
- 주요 협력사업의 예
 - 연계관광상품 개발
 - 크르주 상품 개발

2. 다국적 휴양단지 개발의 적극 추진

- 외국자본 및 기술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그간 관광시설의 개발 및 운영관련 각종규제로 투자여건이 미비하여 외국기업에 의한 관광투자는 극히 미흡하였음.
 - 하지만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철폐와 함께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UR 타결과 함께 해외투자에 대한 불이 조성될 것인바, 차제에 제주관광 발전을 위하여 외국자본 및 기술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됨.
- 특히 다국적 휴양단지의 개발은 여러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 투자비의 공동부담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이 가능함.
- 대단위 휴양지내의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고 시설간 상호 보완성을 유지함으로써 휴양지의 매력을 극대화 시킬수 있음. 즉 기존 부지분양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방식에서 오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음.
- 선진경영기술 습득의 계기가 되며 경영 및 운영시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이득을 볼수 있음.
- 각 투자국가의 국민을 상대로한 관광홍보가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음.
- 여행객의 입장에서 자국에 의하여 투자 및 운영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외화소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경감됨.
- 자국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외여행에 수반되는 각종불편(예 : 언어, 음식 등)의 경감을 통한 여행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음.

3. 컨벤션 리조트의 개발

- 아·태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제주도의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 관광시설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와 더불어 전문컨벤션센터의 건립도 적극 추진되어야 함.
 - 세계화, 개방화 추세와 함께 컨벤션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대하고 있고 그 규모도 대형화 되어가고 있음. 특히 컨벤션은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서 컨벤션 개최지역의 관광관련사업의 활성화와 신규관광시장 개척의 계기를 마련해줌.
- 컨벤션 참여 및 이용형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회의 또는 전시회 참석 등 단일목적 수행을 위한 개별적 참가형태에서 탈피하여 업무와 관광목적의 가족이나 부부동반 형태가 늘어가고 있음. 즉 회의 및 전시참가의 비중 못지않게 컨벤션 전후의 관광이나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 특정주제에 의한 컨벤션 활동

(Convention & Incentive Tour, Sports & Convention)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컨벤션센터의 유형은 컨벤션센터 입지주변 개발형태에 따라 국제업무지역형(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텔리포트형(Teleport), 테크노 파크형(Techno-Research Park), 컨벤션·리조트형(Convention Resort)으로 구분될수 있는바, 제주지역이 관심을 가져야할 유형은 컨벤션·리조트형임.
- 제주지역 컨벤션 리조트의 매력제고를 위하여 컨벤션 시설과 연계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관광, 스포츠 및 문화관련 제반시설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야 할것임.
 - 관광시설로는 사계절 전천후 주야간 이용이 가능한 실내주제공원, 실내스키장, 실내워터파크 등의 개발이 필요함.
 - 스포츠시설로는 국제경기 및 행사의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정장,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마리나, 스키장, 골프장 등의 개발이 필요함.
 - 제주지역의 역사문화를 대변할 축제 등 문화상품 개발이 필요함.

4. 접근성 향상

- 항공접근로의 확충은 아·태지역과의 관광분야 협력을 통한 제주도 관광의 위상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
- 하지만 기존 제주의 국제항공노선은 주중 20회에 불과함. 이중 직항노선은 주9회로 일본지역에 한정되어 있음.
 - 국제직항노선(제주↔일본) : 주9회(오사카, 후쿠오카)
 - 국제경유노선(제주↔부산↔일본) : 주9회(도쿄, 나고야, 센다이)
(제주↔대만↔괌) : 주2회(콘티넨탈 항공)
- 우리나라 Inbound의 주시장인 도쿄지역으로 부터 직항노선이 미개설 되어 관광객유치에 제한요인이 되고 있는바 직항노선 개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대만과의 단교로 인한 직항노선 폐쇄로 대만관광객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바, 대만과 제주의 직항노선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함.
- 기타, 공동협력의 잠재성이 높은 중국, 홍콩 등과의 직항노선 개설 및 외국항공사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

5. 연구개발분야의 집중 투자

- 제주의 관광진흥은 손쉬운 일이 아니고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수반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임.
- 아·태지역의 관광발전은 제주관광의 도약을 위한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 동시에, 과거보다 더욱 어려운 경쟁을 요구하고 있음.
- 그동안 제주관광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주요원인중의 하나는 관광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였기 때문임.
 - 검증되지 않은 즉흥적인 idea들의 집행은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왔음.
 - 관광객의 욕구는 점점 복잡 다양해 가고 있으나 주요시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주기적으로 신뢰성있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치열한 관광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에 바탕을 둔 치밀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분야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표 1〉 주요지역별 시장비중 변화

(단위 : %)

권역 \ 년도	1992	2010	증감
EU	39.63	29.84	-9.79
APEC	41.32	52.08	10.76
NAFTA	19.29	21.29	2.00
미국	14.37	13.13	-1.24
EA	20.65	28.08	7.43
AFTA	5.27	6.75	1.48
NEA	15.38	21.34	5.96
한국	2.12	3.60	1.48
일본	6.06	5.47	-0.59
중국	2.12	3.66	1.54
대만	1.88	2.71	0.83
홍콩	3.21	5.90	2.69

주 : EA는 동아시아, NEA는 동북아시아를 의미함.

자료 : DRI,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2nd Quarter, 1994.

〈표 2〉 아·태지역의 주요국별 Inbound 관광객 성장률 예측

국별(Destination)	연평균성장률(%) 1988-200년
호 주	8.5
중 국	8.0
하 와 이	12.5
홍 콩	4.5
인 도 네 시 아	11.0
일 본	6.5
한 국	3.5
말 레 이 지 아	8.5
뉴 질 랜 드	9.5
필 리 핀	6.0
싱 가 포 르	5.0
대 만	3.0
태 국	9.0
기 타	3.5
합 계	7.0

자료 : EIU, International Tourism Forecasts to 1999, Special Reports No. 1142, 1990

第 2 主 題

水 · 海洋資源開發과 濟州道 位置

目 次

1. 처음말
2. 제주도의 해양학적 입지특성
3. 제주도 주변 해역의 해양학적 특성
4. 해양자원 개발
5. 맺음말

고 유 봉

(濟州大學校 教授)

해양자원 개발과 제주도의 위치

1. 처음말

- 해양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최후의 프론티어.
- 해양개발은 국가전략의 새로운 중요과제로 부상.
- 해양은 세계 최대의 식량생산 공간.
- 최근의 해양개발 가능성의 비약적 고조는 물질적 충족과 정신적 충족 욕구의식에서 비롯.
- 제주도는 동북아의 항공과 선박통행의 요충지.
- 제주도는 그 주변과 동중국해 어장의 전초기지.
- 제주도는 3푸르름(바다푸르고, 산푸르고, 하늘푸르름)으로 조화 이룸.
- 관광과 바다이용은 필요 불가분의 관계.
- UR은 제주도 수산에 크게 영향.
- 해양개발을 위한 진지한 토론, 계획 필요.

2. 제주도의 해양학적 입지 특성

- 환해의 섬.
- 東·西·南·北의 길목.
- 200해리 시대의 새로운 국토확장의 基点.
- 동중국해 어장의 전초기지적 위치.
- 해양 관광자원의 適地.
- 신선한 해양식량자원의 공급지.
- 미오염의 푸른바다.
- 광활한 대륙붕.

3. 제주도 주변해역의 해양학적 특성

1) 복잡한 수괴(水塊)

- 高溫 高鹽分水인 구로시오(黑潮)의 지류로 알려진 대마난류수와 황해난류수.
- 중국대륙 연안에서 부터 오는 중국대륙연안수.
- 우리나라의 남해안에서 만들어진 한국남해연안수.
- 겨울철 표층냉각에 의해 황해에서 만들어지는 황해저층냉수.

2) 수온

- 겨울철은 저온 건조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대류작용으로 0~50m 수층까지는 거의 같은 수온성층.
- 2월~4월의 표층수온은 대체로 제주해협에서 12°C, 남부연안에서 14~15°C.
- 6월의 표층수온은 18~20°C, 8월은 일년중 최고로 26~28°C.
- 12월은 계속적인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표면냉각 빠름, 제주도 주변 표층수온 15~18°C.

3) 염분

- 2월은 고염분수의 분포(제주도 동남방은 대체로 34.6~34.8%, 서남방 32.6~33.0%, 서북방 33.2% 전후).
- 겨울에서 봄까지는 표층과 저층사이의 염분의 수직변화가 별로 없음.
- 6월은 표층과 중층사이에 심한 차이 있음.
표층염분은 제주도 동남방에서 약 33.4~34.0%, 제주도 서남방 33.4~34.0%.
- 8월은 표층수의 저염화 현상, 동남해역 33.0%, 서남방 27.0% 전후.
- 12월은 표층과 중층이 혼합, 대체로 동남방 34.4~34.6%의 고염분수, 남해안 연안수 33.5%.

4) 영양염

- 제주도 해안선 부근의 평균 질산염 $11.5\mu\text{g-at}/\ell$, 인산염 $0.31\mu\text{g-at}/\ell$, 규산염 $17.06\mu\text{g-at}/\ell$.
- 제주도 연근해의 질산염 값, 일반적으로 연안쪽이 외해보다 높음(북쪽에서 $6\mu\text{g-at}/\ell$), 인산염과 규산염 역시 연안에서가 높음(각각 표층에서 대체로 $0.2\sim 0.3\mu\text{g-at}/\ell$, $5\sim 9\mu\text{g-at}/\ell$).

5) 제1차 생산

- 제주도 해안선 주변에서의 클로로필양, 연평균 $0.9\text{mg}/\text{m}^3$.
- 연근해에서의 클로로필양의 연변화 $0.12\sim 2.24\text{mg}/\text{m}^3$.
-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일차생산력, 4월에 평균 $99.8\text{mgC}/\text{m}^3/\text{day}$.

6) 제2차 생산

- 제주도 해안선 주변 동물플랑크톤의 생물량, 평균 $16\text{mg}/\text{m}^3$, 부유성 갑각류의 생산력, 평균 $0.66\text{mgC}/\text{m}^3/\text{day}$.
- 제주도 연근해 생물량, $50\sim 100\text{mg}/\text{m}^3$, 부유성 갑각류의 평균 생산력, $21.2\text{mgC}/\text{m}^3/\text{day}$.
- P(생산량)/B(생물량)의 비, 평균 $0.1\sim 0.2$ 로 높음.

4. 해양자원개발

1) 해양 생물자원 개발

- 세계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의 약 1/6 점유(한국은 60% 점유).
- 건강식품으로 평가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점차 이용 확대.
- FAO에서 미이용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권고.
- 특수한 대사기능과 생체물질등을 이용, 공업 혹은 의약품 개발원료로서의 사용 시도.

(1) 제주도 수산물 생산량의 변화

- 제주도의 수산물 총생산량,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15,000~20,000톤 기록.
- 그후 꾸준히 증가, 1978년에 57,000톤으로 최고치 기록.
-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전반까지 35,000~45,000톤 범위.
- 처음은 해조류 채취량이 전체 생산량을 지배, 1980년대 이후부터는 해조류 채취량 감소, 어패류 생산량 증가.

(2) 제주도 수산물 수출의 변화

- 제주도의 수산물 수출, 1961년에 870% 이었던 것이 점차 증가, 1970년에 2,845%, 1980년에 4,640%, 1985년에 5,420%.
- 1980년대 후반부터 감소, 1990년에 3,514%, 1993년에 2,245%.
- 주요 수출 품목은 소라, 문어, 성게알, 복어, 넙치, 전돔, 계관초.

(3) 제주도의 해양 생물자원 개발 전략

① 수산자원 조성

가. 인공어초

- 1972년~1993년까지 9,726ha 면적에 총사업비 166억원 투자.
- 산발적이고 지역 배분적인 투하방식에서 차츰 자원의 분포 특성, 해저지형, 수심등에 알맞는 어초개발 필요.
- 이를 위한 기초조사 선행, 시험 투하 방식과정을 거쳐 인위적 자원 조성 유도.

나. 인공종묘배양 품종 개발

- 1976년부터 수산진흥원 소속 배양장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전복·소라·돔류·넙치에 대해 인공 종묘 생산.
- 현재 실시 품종 극히 제한, 종묘생산 전문요원과 업체 또한 극히 적음.

- 시장 개방 자유화의 결과 막대한 수산물 수입 예상, 이들에 대한 환경 위생적 검증과 확인 어려움.
- 우리가 잘 아는 환경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구매필요(가격이 조금 비싸드래도).
- 제주도 주변 생산물에 대해서는 「제주도산」마크 도입제 유도.

나. 수출입 검역강화

- 제주도의 수출품 중 수산물 점유비중은 대단히 큼(1993년도 일차산품 수출의 83%).
- 청정해역 생산물 이미지 계속 유지.
- 수입품에 대한 철저한 검역강화를 위해 전문요원 양성과 전문 검사 시스템 조기 확립 필요.

다. 유통체제 개선

- 국내에서는 유통단계 축소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유도.
- 수출품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직거래 가능토록 유통체제 확립.

라. 고소득 전통식품 개발 가공

- 수산물은 자연의 특성상 생산량 자체의 변동 큼.
- 자원의 보호관리 확립, 수산기술 정착으로 어느정도 생산량 조절 가능.
- 활선어 상태의 좋은 가격 대상품 이외의 부분을 가공처리, 지역주민 또는 관광수요에 적합한 전통 수산식품 개발 가공.

⑥ 연안환경 보호

- 육상의 그린벨트에 상응하는 블루벨트 지정, 특별관리 해역 지정 필요.

- 내륙 오염원의 치료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산업폐기물 처리 등의 강화.
- 공해 제거 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육성.

⑦ 어촌의 종합발전

가. 광역 어촌지역 제도의 도입

- 소지역별 이기주의 탈피로 과감한 수산행정과 생산체제 유도.
- 소규모 어항을 정리, 광역 거점어항 집중 육성, 나머지 어항은 다른 용도로 전환.
- 제주항의 어항기능을 다른지역으로 과감히 이전.

나. 인력육성

- 젊고 유능한 인력의 절대 부족.
- 1981~1993년까지 437명의 어민 후계자 육성지원(그 중 46명 전업, 43명 사업중단).
- 국가와 지방 정부의 적극적 지원, 국민적 기대와 포용,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환경, 안전과 능률적인 기술 전수, 병역 혜택등이 필요.

⑧ 제주도 수산연구소 설립

- 현재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 제주분소 1개, 북제주 및 남제주 종묘배양장 각각 1개.
- 현 체제로는 제주도 고유의 독특한 수산개발 연구 및 지도에 일관성, 장기성이 어려움.
- UR 태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전략의 하나가 제주도 수산연구소 설립.
- 대학은 기초연구, 수산진흥원은 민간 참여가 어려운 기술개발, 제주도 수산연구소는 어민소득과 직결사항, 환경관리 보존, 개

- 연안 정착성 고급어종에 대한 집중적 연구개발로 다량의 생산체제로 해양목장화 기틀 유도.

② 어선과 어업 구조 조정

가. 어선어업 조정

- 1965년도 척당 평균 2.7톤에서 1992년에 평균 7톤으로 성장.
- 어선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류생산량 감소.
- 어선척수 감소필요, 감축대상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업보상 및 어선폐기 지원.
- 어선 1척 1건주의 원칙에서 복수어업 허가주의로의 전환.
- 어선과 어로장비의 현대화로 인력난 극복과 재난감소 및 연근해 어업 경쟁력 제고.

나. 어업구조 조정

- 제주도 주변 연안은 어류의 좋은 산란장과 자치어 성육장, 많은 회유 어종의 경유지.
- 어린 자원보호로 장차의 어획대상군 가입유도.
- 연안어업 면허건수 조정(예. 정치망 생산량, 1980년도 1,300톤, 최근 300~500톤).
- 그물코 크기 조정 및 엄격규제(예. 정치망 그물코 너무작음, 어린 어류의 무차별 어획).

③ 양식방법의 전환

가. 외해 다층 이동식 가두리 양식 개발

- 현재 넓치위주의 양식만으로는 생산량과 국민의 기호면에서 불매 불안.
- 해안가의 육상시설양식은 주민과의 마찰, 해안경관 파괴, 오염등으로 계속 문제 야기.

- 해수순환의 원활, 오염의 극소화, 태풍내습시 이동할 수 있는 위해 이동 가두리 양식 개발 필요.
- 예, 1층에 넙치양식, 그 하층에 조피볼락, 우럭등을 양식.
- 넙치는 떠 있는 먹이만 섭취, 가라앉은 먹이는 그 하층의 어류가 섭취토록 어종 조성.
- 대상 생물의 생태 확실히 파악, 해양공학 특히 부유 구조물 공학 육성 절실.

나. 인공 진주 양식

- 살아있는 조개를 모패로 종묘생산, 조개다루기, 핵시술, 월동, 병리 관리, 진주가공등 고도의 복합 생산기술을 요하는 양식.
- 환경이 적당한 해역 선정, 과학적 연구와 지도로 과감한 투자치 있음.
- 국제 공동연구 혹은 국제 자매결연 도시의 협조로 기술이전 가능시 상당한 국제경쟁력 있음.

④ 해양 천연물 화학 육성

- 지금까지의 의약품은 육상의 동 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추출된 천연물질과 그 합성유도체가 주종.
- 근년 육상 생물자원 감소, 대상생물이 해양으로 점차 이전 경향.
- 미국, 일본등의 선진국에서는 상당수의 신물질 특허가 해양생물로부터 천연 생리 활성물질에 부여되고 있음(이미 의약품으로 개발).
- 제주도에선 다종다양한 해양생물 서식, 의약품등 유용하게 쓰이는 생리활성물질 규명을 위한 해양 천연물화학 육성 필요.

⑤ 가공 및 유통체제 개선

가. 생산지 표시제도 확립

발과 이용에 대한 조사연구와 종합적 수산시책을 수행.

2) 해수의 담수화

- 최근의 기상이변으로 담수공급량의 부족, 금후 관광객수의 증가 및 문화생활 급증으로 절대부족.
- 현재의 지하수는 식수로,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가정의 잡용수 충당을 해수의 담수화 자원으로 활용.
- 대규모 plant 설치와 cost 저하 방안 계획이 필요.
- (예, ① 화력발전소와 담수공장을 짜맞춰, 화력발전소에서 냉각수를 통해서 배출되는 증기의 응축잠열을 담수화의 에너지로 사용,
② 담수화의 부산물로 배출되는 농축액(해수의 약 2배)을 화학공업 원료로 사용,
③ 또는 이들의 열원을 도시 폐기물등의 연소에 의해 얻는 등).
- 지하수, 지표수 및 해수의 담수화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대학에 수자원 개발 공학전공 설치.

3) 대륙붕 해저 자원개발

- 산업의 고도화 다양화에 따라 상당량의 공업원료 필요.
- 제주도는 육지의 연장이라고 생각되는 광활한 대륙붕(해저유전, 천연가스 개발 대상지역) 소유.
- 대륙붕 조약에 따라서 해저자원은 연안국에 귀속.
- 제주도 주변의 대륙붕 해저자원개발 이용시 제주도의 전초기지 역할.

4) 해양 공간자원 이용

- 연안역 이용은 각 지역의 사회 경제 특성등에 크게 의존.
- 연안역의 지역특성 고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 이용 추진 필요.
- 연안역의 환경보전, 국토보전, 안정성의 확보와 기존 산업과의 건전한 연계

필요.

① 해양과학관 시설

- 해양에 관한 자연과학, 인문 사회과학의 과거 현재 미래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 보관하고 연구 분석 결과를 일반대중이 알기쉽게 전시, 해양과학 발전을 도모하는 시설.
- 해양 박물관, 전시관, 교육관, 문화관등을 시설.

② 해중 전망탑과 해상낚시 공원

- 소규모의 해저관광과 주변의 해양생물 관람.
- 낚시인구의 증가로 가볍게 바다로 설치한 낚시 잔교 이용.

③ 마리나 시설

- 소형 레저보우트를 안전, 확실히 수용, 행동적 해안 레크레이션 제 공장소.
- 해양성 관광 증가 추세, 정적인 관광에서 동적인 해양관광으로의 변환.
- 제주도에도 증문에 시설중, 종합유관시설이 필수(정박, 계류, 견인, 수리, 정확, 샤워, 상점, 관리사무소 등).

④ 종합 오션 돔 시설

- 해수를 이용한 전천후 레크레이션 및 휴식처 역할.
- 윈드서핑, 연중해수욕, 일광욕, 모래뜸, 사우나, 레스토랑, 숙박시설 등의 종합 해양 레저시설.

⑤ 해중터널 산책로

- 파도적이고, 수중경관 수려한 곳을 선택, 해중터널 시설.
- 생동감 넘치는 해중관광.

⑥ 제주도와 부속섬 간의 교량시설

- 넓은 교량위에서의 낚시.

- 부속섬에서의 산책, 자연학습, 전통적 숙박시설과 전통음식.
- ⑦ 야경 및 민속 겸용 유람선 레스토랑
- 근거리 운항 또는 정박 유람선 사용.
 - 선내에서는 민속놀이, 무직댄스등으로 흥취돋움.
 - 저녁도 선내에서.
- ⑧ 다목적 민박시설
- 산과 바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잇점을 살림.
 - 어촌의 호적인 곳에 깨끗한 민박시설.
 - 바다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주로하고 겸하여 산과 들을 활용.
 - 부수적으로는 어촌과 바다를 이해하는 자연 및 생활 학습장 역할.

5) 해양개발위원회와 국제협력기구 설치

① 제주도 해양개발위원회

- 질서있고, 미래지향적인 개발과 환경보존을 위한 협의기구.
- 해양개발의 장단기 계획수립, 착실한 이행등의 총체적인 관장과 평가.
- 산 학 관 일반인을 포함한 제주도 해양개발위원회 조직.

② 국제협력기구

- 동중국해에 대한 해황을 아직도 잘 모름.
- 자원조사의 미수행상태, 불법어로 계속적인 자행.
- 현 상황 계속시 동중국해의 해양생물자원은 위기.
- 공동이용과 관리로 항구적인 자원활용 필요.
- 한·일·중·대만등의 주변국으로 구성, 동중국해 수산자원 협력기구 설치.
- 제주도 주변과 동중국해 대륙붕개발 이용 및 환경보존을 위한

대륙붕 해저자원개발 이용 국제협력기구 설치.

5. 맺음말

- 해양개발은 육상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
- 해양 개발이 실용화되기까지 해상조건 파악, 기술개발, 실용설비등에 장기간 요구.
- UR영향의 최소화, 좋은 해산물의 수출을 위한 장단기계획 수립.
-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기술개발과 자원의 이용.
-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환경기준의 책정과 강력한 시행.
- 해양개발을 위한 과감한 장기투자, 인재육성, 기술개발.
- 제주도의 해양자원개발의 전망, 결코 어둡지 않음.

第 3 主 題

濟州企業의 世界化 戰略

目 次

- I. 世界經濟秩序의 動向
- II. 21世紀 世界經濟秩序 展望
- III. 世界經濟秩序 變化의 國民經濟的 含意
- IV. 韓國經濟의 國際化·世界化 課題
- V. 地方의 國際化
- VI. 世界化·地方化時代의 產業政策方向
- VII. 濟州企業의 世界化 方案(Check List)

〈참고〉 우리나라 企業의 世界化 障礙要因

左 承 喜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I. 世界經濟秩序의 動向

1. 地球的 次元：WTO體制的 形成

- WTO 出帆으로 국제교역규범의 拘束力이 強化되고, 기존 GATT體制가 적절히 다루지 못하였던 纖維, 서비스, 農産物 分野가 多者間 協定에 흡수됨에 따라 國際交易秩序의 '豫測力'(predictability)이 향상됨. 世界經濟에 관한 한 準世界政府의 出現을 함축함.
 - 貿易自由化 擴大：관세·비관세장벽 완화대상에 종전의 GATT 規範에 포함되지 않았던 農産物, 서비스, 섬유 등을 포함하여 모든 交易對象을 포괄하는 總括規範 마련
 - 貿易規範의 明瞭化：反덤핑, 긴급수입제한, 輸出自由規制 등을 일방적이고 恣意的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따라서 “안정된 國際貿易秩序”를 예상할 수 있고, WTO 加入國의 貿易政策이 汎世界的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WTO체제의 출범은 自由競爭의 확대를 前提로 하는 ‘競技規則’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앞으로의 國際交易秩序가 先進市場 競爭體制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開途國이 과거 누릴 수 있었던 國際交易 관련 ‘無賃乘車’의 여지가 점차 축소되는 것을 의미함.
- WTO는 紛爭解決機構를 設置. 이에 따라 貿易關聯 紛爭이 발생했을 때 雙務的 해결방식(報復措置) 대신에 WTO 紛爭解決機構에 정식 提訴하는 것이 가능해짐. UR協定 妥結後 국제통상관련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紛爭의 소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분쟁해결기구 설치로 會員國間의 通商摩擦이 惡化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됨.
- 後續協商課題：새로운 라운드 가능성의 대두
 - 앞으로 先進 各國은 競爭擴大에 대응한 경제전반의 效率向上과 國際競爭力

강화노력을 강구하는 한편, 國家間에 서로 相異한 ‘比較優位’ 條件을 平等化 (a level playing field)하는 것을 ‘公平한 競技’의 前提條件으로 提示하면서 後續協商을 주도할 展望임. 1994年 4月 15日 모로코의 마라케시(Marrakesh)에서 UR協定 서명식을 전후하여 次期 貿易協商 議題에 대한 論議가 시작됨.

- 自國의 國濟競爭力을 提高하기 위하여 勞動條件, 競爭政策, 技術支援政策, 環境規制 등에서 다른 나라보다 完화된 政策을 펴는 것은 일종의 暗默의 補助金을 支給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따라서 이를 規制하기 위하여 새로운 多者間貿易協商(環境問題관련 협상, 競爭政策관련 협상, 勤勞基準 관련 협상 등)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① 環境關聯 協商

- 環境협상은 生産國의 環境問題를 빌미로 특정제품의 교역에 제한을 가하는 貿易規制 措置가 WTO의 自由貿易 基準原則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多者間協商으로 해결하자는 것임.
 - 先進國들이 自國內의 엄격한 환경기준으로 인해 상실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쟁국이나 교역상대국에도 동일한 환경규제를 강요함으로써 환경규제기준 격차에 따르는 생산비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 이 밖에도 환경과 관련 무역규제로 자국의 환경 및 자원을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공해유발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技術障壁) 설치를 허용하는 ‘防禦的 貿易規制’와 地球環境保護를 위해 환경문제(溫暖化, 오존층 파괴, 생물다양성 훼손)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生産, 流通 및 消費를 規制하는 國際協約의 實效性을 보장하기 위한 무역규제가 있음.
- 현재 WTO와 UN은 地球環境問題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무역규제를 허용하며, 防禦的 貿易規制에 대해서는 ‘無差別 原則’과 最小規制의 原則 등을 전제조건으로 허용하고 있음.

② 勤勞條件관련 協商

- 근로조건관련 협상은 劣惡한 勤勞條件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출을 ‘社會的 덤핑’으로 간주하고, 국가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自國法에도 어긋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默認함으로써 일종의 輸出補助金을 지급하는 것을 금하는 국제규범을 제정하자는 것임.
- 미국과 프랑스가 構造的 失業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국제규범 설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운동이 크게 약화된 英國, 근로 조건관련 협상 타결시 東歐로부터의 勞動力 流入을 우려하는 獨逸, 그리고 東南亞 國家들의 反撥을 무시할 수 없는 日本 등은 협상에 消極的임.

③ 技術政策관련 協商

- 技術政策관련 協商의 필요성은 각국의 서로 다른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국가간 교역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國際規範制定이 필요하다는 데서 비롯되었음.
- 기술개발 지원의 市場歪曲效果와 不公正 交易效果를 배제하기 위해 科學技術政策의 國家間 調和 및 科學技術活動의 自由화와 內國人 待遇 原則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④ 競爭政策관련 協商

- 경쟁정책관련 협상은 國內外 市場의 競爭制限 行爲가 서로 相異함에 따라 무역자유화 효과가 감소된다는 認識에서 競爭政策의 적용에 관한 國際規範을 정립하여 경쟁조건을 平準化하자는 것임. 즉 競爭政策을 國際的으로 平準化하여 競爭政策과 貿易政策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國際的 競爭規範을 制定하자는 것임.
- 多者規範의 논의가 구체화되기 이전에도 美日構造協議(structural impediments initiatives) 및 包括經濟協議(framework talks)와 같은 雙務間 通商協議 차원에서는 상대국 競爭政策의 개선을 요구한 사례가 있음.

2. 地域的 次元：經濟地域主義

- UR協商妥結과 WTO의 출현 등으로 世界經濟의 통합이 진전되는 속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地域間 協력을 강조하는 地域主義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음.

가. 유럽經濟統合

- 1993年 11月 마스트리히트條約이 발표됨에 따라 유럽共同體(EC)는 유럽 연합(EU)으로 전환되었으며, 여기에 94年 1月부터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가세된 유럽조약(EEA) 발효
 - 이미 商品과 서비스의 域內自由化뿐만 아니라, 生産要素 즉 人力 및 資本의 自由移動을 보장하는 單一 共同市場 완성
 - 예를 들면 한 會員國에서 허가한 金融機關은 추가허가 절차 없이 다른 會員國에서도 자유영업허용, 한 나라에서 취득한 醫師, 辯護士 등의 資格證은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으로 認定, 각종 標準 및 技術規格統一 등 도모
- EU는 유럽의 政治的 安定과 美·日에 대한 經濟的 위상강화를 목적으로 統合을 추진하고 있으며, 經濟的 分野뿐만 아니라 共同外交와 安保, 法務 및 內務分野에 대한 協력을 도모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자유로운 人的交流, 單一通貨體制의 實現, 政治的 統合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同盟으로 심화·발전될 전망이며, 域外國에 대한 상대적 차별도 강화될 전망

나. 北美自由貿易協定(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 EU에는 프랑스·독일·벨기에·네델란드·룩셈부르크·이탈리아·영국·아일랜드·덴마크·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12個國이 있고 EFTA에는 오스트리아·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스위스·아이슬랜드 등 6個國이 있음. 이 중 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가 최근 EU에 가입하여 EU 會員國은 總 15個國으로 늘어남.

- 美國·캐나다·멕시코間 自由貿易協定이 94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3 個國間 商品과 서비스 市場의 域內開放이 추진되고 있음.
- NAFTA는 交易增進과 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통한 무역의 이익증진과 국제경쟁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純粹貿易協定으로, 先進國과 開途國間에 체결된 最初의 自由貿易協定임.
- NAFTA협정은 知的財産權 保護, 環境問題, 勞動問題 해결절차와 같이 國際的 規範이 불명확한 分野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WTO體制下에서 通商政策 樹立과 通商協定의 새로운 基準이 될 것임.
- 향후 NAFTA는 中南美地域을 대상으로 雙務協定締結을 통해 「美州自由貿易協定」(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 NAFTA는 우리나라의 最大輸出市場인 美國을 主軸으로 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는 멕시코가 締約國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우리나라의 美國市場 占有率은 1988년 4.6%에서 1992년 3.1%로 하락한 반면, 멕시코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5.3%에서 6.6%로 상승 우리나라 수출품의 相對的 價格競爭力이 弱화되고 있음.
 - 原產地 規程強化와 非關稅障壁에 따르는 貿易轉換效果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輸出減少가 가속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北美經濟의 活性化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貿易擴大效果도 클 것이기 때문에 長期的 效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

다. 亞太經濟協力會議(APEC)

- 1989年 출범하여 현재 17개 會員國²⁾으로 구성되어 있는 APEC은 최근 美

2)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 싱가포르,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등 17개국.

國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특히 시애틀
 頂上會談을 계기로 향후 保安 및 經濟를 망라한 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94년 11월 보고르 선언 이후 역내무역자유화 계획이 구체
 화되고 있음.

〈表 1〉 地域別 經濟力 比較(92年 기준)

	NAFTA	EEA	EU	APEC
會員國數(개국)	3	17	15	17
人口(천만명)	37	37	34	195
GDP(천억불)	68	75	68	119
輸出(억불)	6,240 (16.9%)	16,170 (43.8%)	(14,580) (38.5%)	15,040 (40.8%)
輸入(억불)	7,380 (19.2%)	16,620 (43.2%)	(15,240) (39.6%)	15,240 (39.6%)

註：會員國數는 1994年 5月 現在임.

資料：United Nations National Accounts(1994)

3. 雙務國 次元：相互主義

- － 世界最大貿易國인 美.日間의 貿易紛爭을 雙務的 紛爭解決方式(報復措置)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상존하고 있는바, 이는 兩國뿐만 아니라 國際交易秩序의
 確立과 自由貿易의 擴大를 목표로 하고 있는 WTO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II. 21世紀世界經濟秩序 展望

1. 世界經濟統合의 加速化

- 2차대전 이후 지난 50여년간 世界經濟는 個別國民經濟間의 상호의존성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經濟統合化가 크게 진전되어 왔음.
- 이러한 世界經濟의 統合化 進展은 민간부문의 自生的 統合努力과 정부수준에서의 통합노력에 의해 주도되어 왔음.
 - 交通手段과 情報.通信技術의 발달에 따라 국가간의 '經濟的 거리'가 급속도로 단축되고, 재화와 돈과 사람 그리고 정보의 이동에 따른 비용이 크게 절감되면서 企業들이 自生的으로 經營活動을 지구화해 나감에 따라 세계경제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 政府次元에서도 國家間 交易을 阻害하는 각종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民間의 自生的 統合化 現象을 보다 장려하여 왔음.
 - 이 두 힘이 상승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경제 통합화를 주도해 왔음.

2. 國境 없는 地球村 經濟의 形成

- 지금까지 경험해 온 세계경제통합과 앞으로 기대되는 통합은 그 성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지금까지 세계경제는 GATT체제하에서 國境上의 交易障礙(at-the-border barrier) 제거와, 內國人待遇의 適用擴大 등 皮相的 統合(shallow integration)을 달성하였음.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WTO체제로 이행해 나감에 따라 國境内部(behind the border)에서 國內政策의 調整을 통한 深層的 統合(deep integration)이 進行될 것이므로 점차 國境 없는(borderless world) 地球村 經濟로 이행할 전망이다.
 - 그동안 GATT를 통해 經濟的 國境이 낮아짐에 따라 국가간 國內 經濟政

策上の 차이가 외국에 미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 시장통합의 진전에 따른 가내 경제정책효과 자체의 약화(arket pressures), 국가간 가치관의 상충(value conflicts) 등 때문에 점차 세계각국은 深層的 통합압력에 직면하고 있음.

- 앞으로 국제경제협력기구나 각국의 경제정책당국은 이러한 深層的 통합 압력에 대응하여 국가간의 정책협조나 공통의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深層的 統合을 촉진하는 方向으로 나갈 전망이다.
- 이에 따라 深層的 통합하에서는 각 국민경제가 모두 共通의 經濟的 機會와 制約下에 놓이게 될 것이며, 經濟의 構造나 經濟政策의 運用 등 경제의 모든 면에서 그 類似性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個別企業들도 모범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구조가 세계적으로 유사해지는 양상이 가속될 전망이다.
- 따라서 21世紀의 세계는 경제적 통합의 진전에 따라 持續的으로 經濟的 國境이 消滅되어 갈 것임. 비록 NAFTA, EU, APEC 등 地域協力體制의 活性化는 WTO가 追求하는 汎世界主義를 일시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듯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機構들도 WTO와 더불어 國民經濟間的 障壁을 낮춤으로써 世界經濟 統合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것임.

III. 世界經濟秩序 變化의 國民經濟的 含意

1. 機會의 擴大와 競爭의 深化

- 21世紀에 기대되는 世界市場은 地理的, 政治的 國境이 經濟活動에 큰 제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經濟의 活動영역을 구성하던 市場制約을 해소시킴으로써 國民經濟의 成長潛在力을 최대한 發現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 그러나 이와 동시에 海外市場은 물론 國內市場에서도 對外開放의 확대와 國內外 企業들에 대한 차별 없는 경제활동의 보장으로 國內外 企業間 無差別的 競爭이 심화될 전망이다.
- WTO體制의 出帆은 國際去來에 대한 國家의 統制力을 弱화시키는 한편, 財貨, 서비스, 生産要素, 企業 등의 國際移動性(international mobility)을 급격히 높일 것으로 예상됨.

2. 國民經濟 概念의 變化

- 世界經濟統合의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 國民經濟는 다음과 같은 質的인 變化를 겪을 전망이다.
 - ① 財貨, 서비스, 生産要素, 企業의 國籍이 점차 無意味해 짐.
 - ② 本質的으로 獨立的 經濟單位인 國民經濟가 '우리'와 '바깥'이 同化되면서 本質的으로 世界經濟의 한 部分化할 것임.
 - ③ 한 國家內에서도 地方들 사이에 多樣한 特性의 地方經濟들이 共存할 可能性이 增加: 地方에 따라서는 같은 國家 안의 다른 地方보다 外國의 地方과 더욱 有機的 經濟關係를 이루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임. 예컨데, 嶺南 혹은 湖南地方이 當面하게 될 國際經濟 環境과 서울·仁川地方이

처하게 될 國際環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며 각 지방의 經濟活動은 각각의 與件에 알맞게 변해 나갈 것임.

- 이와 같은 國民經濟概念의 質的 變化로 經濟政策의 基本틀과 方向을 再定立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짐.
 - 無差別主義 내지 開放主義의 일반적 적용이 不可避해지기 때문에 政府의 特惠 내지 干涉의 縮小가 不可避해지고, 결국은 市場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에 依存하는 經濟運營體制로 이행할 수밖에 없음.
 - 經濟政策의 受惠者는 물론 內國人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國內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것임(앞으로 國籍概念은 屬人主義보다는 屬地主義에 입각하는 것이 점점 더 합리적일 것임).
 - 經濟政策의 대상으로서 産業 자체보다는 企業이나 個人 등 個別 經濟主體가 보다 의미있는 단위가 될 것임.

3. 競爭優位要因의 變化

- 世界가 單一市場化하고 財貨, 사람, 資本의 國際移動의 自由가 확대됨에 따라 國際移動性이 낮은 生産要素들이 國民經濟의 基盤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 生産要素들이 國民經濟의 特性을 결정할 것임.
 - 한 나라의 比較優位 혹은 競爭優位는 점점 더 未熟練 勞動과 같이 國際移動이 容易치 않은 生産要素와 土地(氣候포함)처럼 國際移動이 불가능한 生産要素, 그리고 社會間接資本, 科學技術水準, 社會制度, 文化등의 廣義의 生産要素들에 의해 결정될 것임.
 - 반면, 生産要素들 가운데 國際移動性이 높은 資本이나 高級人力은 그 豐饒度가 國家間에 平準化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며 國家經濟의 特性을 결정하는 要因으로서의 重要性은 낮아질 것임.

4. 地域競爭力의 重要性和 資源誘致 必要性 增大

-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의 과제는, 經濟의 潛在力을 최대한 發揮하기 위해 주어진 賦存資源을 어떻게 配分 活用하느냐에 있었다면, 향후의 과제는 이에 추가하여 어떻게 우수한 資源을 誘致하느냐를 생각하여야 함.
 - 個別企業이 世界化를 통해 企業內에 世界를 포괄하는 經濟活動網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점점 더 많은 價値와 富를 創出하게 됨. 따라서 한 나라의 經濟成果는 그 나라가 이같은 企業活動의 立地로 選擇되는지 여부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됨. 1980년대 이후 東南亞 여러나라와 中國의 經濟가 外國人投資에 힘입어 活力 있게 成長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時代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함.
- 세계경제의 통합화에 따라 거시경제의 관리능력은 물론 資源의 이동과 활용에 대한 정부의 통제능력은 크게 저하되고, 과거 국경을 방패로 하고, 정부의 보호와 지원하에 육성되어온, 국제경쟁력 강화시책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개별 국민경제는 통합된 세계경제의 지역경제로서 서로 경쟁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리고 기업경영이 세계화되면서, 지리적, 정치적 국경이 경제적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개별 기업들은 세계 모든 資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고 부존資源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될 것임.
- 기업들은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찾아 세계시장을 무대로 자유로이 이동함으로써 기업의 지구화·세계화가 보다 심화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경쟁력은 얼마나 생산성 높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들의 생산성제고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게 될 것임.
- 따라서, 지역경제로는 이미 주어진 부존資源의 제약을 양적으로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질적인 내용을 개선하고 각종 제도 등 시장경제여건을 기업활동에 유리하게 조성함으로써 국내의 기업을 막론하고 많은 기업들이 同地域을 생산 및 업무 중심기지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 競爭力 유지의 관건이 될 것임.

- 따라서 국가경제의 대외경쟁력은 바로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입지하고 있는 “企業”의 世界市場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으로 표출될 것임.

IV. 韓國經濟의 國際化.世界化 課題

1. 國際化·世界化의 概念

- 지난 수년간에 걸쳐 韓國經濟의 開放化, 國際化, 世界化가 새로운 政策基調로 擡頭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우리의 經濟社會 發展에 따른 自生的 要因과 더불어 脫冷戰 이후 國際經濟秩序의 변화에 따른 外生的 要因에 의하여, 특히 최근 加速化되고 있음.
- 開放化와 國際化는 外部의 交互作用을 前提로 하기 때문에 內向的 作用과 外向的 作用의 兩面性을 가지고 있는 概念임. 그러나 世界化의 경우는 당초 企業次元에서 多國籍企業의 經營이 母國의 政治力量과 科學技術 및 資本力을 배경으로 國境 밖으로 擴大되어가는 現象을 運營의 汎世界化(globalization)라고 지칭해 왔음을 유추하면, “國民經濟의 世界化”는 外向的인 面이 積極的으로 강조되는 개념임.
- 開放化는 外國의 資本, 技術, 商品, 情報, 文化, 서서비스 등이 提供者의 意思에 따라서 自由로이 流入·受容(inward accomodation) 되게 하는 內向的 開放과 우리의 資本, 技術, 서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海外投資·進出(outward advancement)을 促進하는 外向的 開放을 함축함.
- 國際化는 國際的으로 普遍化된 制度, 規範과 慣行을 國內에(內向的으로) 適

用하기 위해서 우리의 制度와 規範, 慣行을 바꾸어 國際水準에 適應(adaptation) 하는 과정과, 한편 우리의 制度와 規範을 國際的(外向的)으로 適用하기 위해 擴散(extension)시켜나가는 과정을 함께 내포하고 있음.

- 世界化는 이러한 開放化와 國際化의 과정과 결과로서 우리의 世界的 比重과 役割을 증대해 가는 것임. 즉 國際的 位相의 上昇과 그에 걸맞는 主導的 役割을 遂行하게 되는 段階와 이를 달성해 가는 過程을 意味함.
- 開放과 國際化는 한 나라의 國力이나 經濟力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世界化는 對內的으로 先進國家의 實現을 위한 國家競爭力 내지 國力の 強化가 바로 그 前提가 되고, 對外的으로는 世界 中心國家의 一員으로 役割하는 것으로 表出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世界化를 위해서는 특히, 對外的으로는 國家次元의 世界戰略과 아울러 企業次元의 世界戰略의 構想이 先行이 되어야 할 것임. 그 바탕 위에서 世界經營의 中心國家의 一員이 될 수 있는 國力を 伸長하고 그에 걸맞는 役割을 수행해야 할 것임.
 - 企業의 世界戰略은 企業經營의 世界化를 넘어서서 產業別 世界市場管理 目標, 世界全域에 걸친 生産要素의 最適動員方式, 企業의 現地化 戰略 및 技術, 生産, 마케팅 등에 있어서 對內外 提携·協力 등 經營사슬을 設計·推進하는 것임. 다만, 이는 國家次元의 世界戰略과 調和속에서 推進되어야 할 것임.

2. 國際化·世界化를 위한 經濟運營方式의 轉換

가. 先進經濟 秩序·慣行의 構築

- 우리 經濟의 國際化 내지 世界化란, 우리 經濟의 先進化와 그에 걸맞는 國際的 役割을 遂行하기 위해서 새로운 世界經濟 環境속에서 韓國經濟가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經濟體質을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課題들을 持續的, 成功的으로 遂行해 나가야 함.

1) 國際化·先進化를 위한 經濟制度 및 慣行의 改革

- 한 經濟의 制度와 慣行의 改革은, 短期的으로는 우리 經濟에 內在하는 不正과 非理를 털어내고 效率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고, 長期的으로는 競爭的 市場經濟로서 自生力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함.
 - 한 나라의 運命은 사람과 制度에 달려 있음. 그중 한 나라의 經濟實績, 國民의 生活水準과 幸福度는 사람보다 制度에 의해서 더 큰영향을 받음.
 - 예컨데, 市場經濟의 興盛과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衰亡은 사람보다는 制度의 차이가 만든 것임. 또한 같은 市場經濟라도 美國과 日本의 차이, 韓國과 南美의 차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라기보다 制度의 차이에 緣由하는 것임.
- 이러한 視角에서 보면 國際化, 先進化의 첫걸음은 國內經濟制度 및 慣行의 改革을 통해 內外國人을 막론하고 公正한 競爭與件下에서 자유롭게 競爭하여 땀흘린 만큼 正當한 보상을 받는 公正한 게임규칙이 支配하는 經濟·社會를 定着시키는 것임. 그리하여 經濟主體들의 경제하려는 의욕을 적극 북돋아 成長潛在力의 向上을 도모하는 데 있음.
- 따라서 韓國經濟의 先進化를 달성하기 위한 質的 變化는 무엇보다도 「開放的 公正競爭」 원칙하에 성숙된 民間主導의 競爭的 市場經濟體制가 定着되도록 制度慣行을 改革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한 經濟制度, 秩序, 慣行 등의 구체적 改革方向은 다음과 같음
 - 經濟·社會의 작동이 獨占的 手段, 예컨데 地緣, 學緣, 血緣 등에 따른 배타적 그룹들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구성원의 '能力'을 바탕으로 한 競爭體制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 人的資源의 수직 및 수평적 이동성을 높여 經濟·社會가 항상 競爭的

壓力下에 놓이도록 함으로써 經濟活動에 있어서 創意가 極大化되도록 함.

- 經濟·社會내의 각종 資源에 대한 價格 및 利用規制를 철폐하여 모든 資源의 社會에 대한 有用성이 附加價值生産에의 寄與度에 따라 公正하게 評價됨으로써, 資源利用의 極大化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제반 經濟關聯 法令이나 規制들을 再檢討하여 競爭制限的인 條項들을 과감히 털어내고, 公正한 競爭原則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再整備하여야 함.

2) 經濟開放의 擴大

— 經濟開放의 확대는 競爭力 높은 産業의 팽창과 競爭力 낮은 産業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産業構造調整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할 것이나 經濟國際化의 利得은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얻어질 수 없음.

— 그러므로 政府가 할 일은 經濟開放을 확대시키되 構造調整 次元의 支援으로 이를 補完하는 것임.

- 産業構造調整을 최소한의 苦痛으로 短期間에 치르기 위해서는 産業支援과 經濟開放化를 병행하여야 할 것임. 왜냐하면 開放으로 인해 발생할 限界企業의 倒産과 失業에 대해 가장 잘 對備하는 길은, 바로 開放을 통해 競爭力 높은 産業이 빠르게 成長함으로써 雇傭機會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임.

— 우리는 1960년대초 이래 農業部門 就業者의 비중이 전체의 67%에서 14%선으로 대폭 축소되는 동안 放出되는 人力을 製造業과 서비스産業의 急成長으로 吸收하였던 경험에 있음. ‘모든’ 産業의 競爭力 強化를 목표로 하는 産業保護나 支援은 産業構造調整을 지연시키고 苦痛을 長期化할 따름일 것임.

3) 國際規範의 受容

- 經濟國際化를 통하여 國際分業을 深化·擴大하는 과정에서 經濟交流에 관한 國際社會의 規範과 慣行의 遵守를 요구받게 됨.
- 새로이 出帆할 WTO의 貿易 및 投資, 國內産業支援, 知的財産權 保護 등에 관한 規定에 맞추어 관련 國內法規 및 制度가 改正되어야 할 것임. 또한 예상대로 OECD 加入이 이루어지면 經常 및 資本去來, 競爭政策, 環境 등에 관한 同 機構의 規範을 受容하여야 할 것임.
- 國際規範의 受容態勢는 積極的이어야 할 것임. 國際規範의 違反을 最小化한다는 消極的 접근이 아니라, 금후 우리 經濟의 장래는 海外의 機會와 可能性 開發에 달려 있음을 認識하고 '바깥世界'의 積極的 活用을 촉진할 목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임.
 - 과거 우리 社會는 市場開放을 가능한 한 지연하거나 最小의 폭으로 수용하는 것이 最大의 國益이 되는 듯 對外關係에 消極的인 姿勢를 취해 왔음. 國際經濟交流에 대한 國家 統制力이 弱화되고 있기 때문에 保護와 支援을 통한 特定産業育成 政策이 成功할 可能性은 희박해지고 誘因體系 歪曲의 부정적 효과는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國內 經濟主體들이 外國人投資와 海外市場을 스스로 활용하여 바깥 世界와 國際分業關係를 深化·擴張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國 제경제질서 속에서 最善의 政策임. 이를 위해 國內外 制度를 정비하고 障 碍를 제거하여야 할 것임. 이같은 政策方向 아래서 國際規範 受容의 範圍와 順序, 時期, 方法 등에 관한 最善의 組合을 찾아야 할 것임.

4) 企業의 競爭力 向上을 위한 制度的 環境의 改革

- 世界經濟가 國경 없는 單一市場으로 통합되어 감에 따라 自國 國境內에 企業을 유인해야 하는 國家는 그 統制力이 弱화되는 반면, 활동의 根據地로 삼을 국가를 選擇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기업은 그 힘이 強化되었음.
- 이러한 새로운 環境에서 政府가 당면한 挑戰은, 우수한 企業과 人力이 되

도록 많이 自國國境 안에서 生産的이고 創造的인 활동을 영위하도록 國內外 資源을 誘致하는 것임. 더 나아가, 우수한 世界企業들이 우리나라에 競爭 的으로 立地하도록 우리 社會에 대한 國際社會의 매력을 높여야 함.

－ 企業環境 가운데에서 가장 시급하게 改善이 필요한 것은 企業活動을 促進 혹은 制約하는 각종 制度라고 할 수 있음. 租稅 및 金融制度, 각종 認許 可制度和 規制, 그리고 이들이 구체적인 事案에 있어 실제로 運營되고 適 用되는 慣行이 크게 改善되어야 함.

- 오랫동안 우리 經濟는 비교적 낮은 賃金水準의 덕으로 不正과 非理와 非效率에도 불구하고 國際競爭力을 지탱하고 있었으나, 89年 이후 급 속한 賃金上昇으로 賃金은 競爭國 水準과 같거나 높은 반면 企業活動의 制度的 環境은 後進國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競爭力이 下落하고 있음.

- 이러한 企業活動의 制度的 環境이 改善되지 않으면 企業의 競爭力 下落을 막을 방법이 없음. 經濟 先進化 내지 國際化를 위한 競爭力 強化는 어느 特定產業의 競爭力 強化가 아니라 制度的 環境의 改善으로서만 가능한 全經濟의 競爭力 強化에 있음.

나. 經濟運營方式의 改善

－ 지금까지는 政府主導로 經濟經營을 해 옴으로써 市場의 기능이 위축되고, 자본주의적 市場經濟體制의 발달이 沮害되게 되었음. 이에 따라 資源配分 上的 효율성이 떨어져 전체 經濟의 競爭力 向上을 沮害하고 있음.

- 그동안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不信때문에 정부의 직접 介入 및 규제가 市場機能을 대체함으로써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끊임없는 정부의 개입증가와 政府規模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정부(관료)조 직자체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었음.

－ 통화직접규제, 직접적 투자관리, 건설투자관리, 수출입 촉진 및 규제, 主

要價格規制 등 巨視經濟運用을 직접규제적 방법에 의존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격체계를 교란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었음.

- 미시정책의 경우도 市場競爭의 활성화를 위한 市場與件의 개선 보다는 政府의 産業政策이 市場自體의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해 왔음.
- 경제의 발전단계가 낮아 “市場” 자체가 不在 혹은 不完全했던 단계에서는 정부의 介入을 통한 補完이 불가피하였지만, 이제 經濟規模가 확대되고 構造도 복잡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형 경제운영체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市場의 機能 및 役割이 보다 더 활성화 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정부의 가장 중요한 機能은 市場機構에 의한 資源配分機能이 활성화 되도록 經濟運營制度(Institutions), 즉 경제내의 공정한 경쟁규칙(rules of the game)을 정립하는 데 한정되어야 할 것임.
 - 巨視經濟政策은 전통적인 통화 재정정책수단을 통한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단기적 景氣調節政策의 빈번한 변경에 따른 경제의 不安感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운용시계를 長期化하고, 開放經濟에 부응한 政策運用技術을 개발해야 할 것임.
 - 微視資源配分政策은 정부개입에 의한 직접적인 配分指示方式에서 벗어나 制度定立 등 市場與件改善을 통해 “競爭”에 의한 最適配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V. 地方의 國際化

1. 地方의 國際化의 意味와 目的

- 우리나라는 UR타결이후 전면적인 개방이 불가피하고 世界經濟의 흐름에 따라 國際化를 추진해야 하는 한편, 年中 地自制 長選舉를 시작으로 전면적인 지자체가 실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 하게됨.
 - 이러한 國際化課程 속에서 본격적인 地自制의 실시에 따라 地方經濟가 국경의 보호나 중앙의 여과과정없이 바로 國際的으로 노출되게 되었음.
 - 따라서 世界經濟 속에 바로 노출될 地方經濟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地方의 國際化가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당면과제로 대두됨.
 - 이에따라 地方化의 과제는 바로 지방의 국제화라고 볼 수 있음.
- 地方의 國際化 目的은 지역의 경제활동여건을 개선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창출하고 지방경제의 대외개방과 국제적 노출의 기회를 활용하여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하는데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地方은 國際化를 추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수용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못함.
- 따라서 향후 論議의 초점은 地方의 國際化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하는 관점에 맞추어야 할 것임.

2. 地方의 國際化 推進에 필요한 요소

- 우리나라의 地方與件을 고려할 때 향후 지방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住民意識의 국제화, 施設의 국제화 및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地方의 國際化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식의 국제화와 이를 이끌어 나갈

지방공무원의 자세전환과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施設의 국제화는 외국과 교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交易施設의 改善은 물론 情報·通信網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같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地方에서의 국제화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行政規制를 과감히 정비하고, 中央政府의 권한을 地方政府이 이양하는 등 地方自治團體가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용이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 될 수 있어야 할 것임.

3. 地方의 國際化를 위한 中央政府의 課題

가. 特定地域의 戰略的 國際化 구상

- 特定地域을 국가차원의 전략과 연계하여 地方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전략 모색.

나. 社會間接資本施設의 정비

- 地方의 國際化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交通·通信 및 情報施設을 확충
 - 주요 공항, 항만 및 공단을 배경으로하는 特定地域을 國際化據點 都市로 지정하고 전국적 산업·기술 「네트워크」 형성
 - 영종도공항, 고속전철사업 등과 연계하여 地方空港의 대형화 내지 거점지역의 國際空港 확장 및 개설

다. 法, 制度의 整備

- 地方에서 國際化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의 정비가 모색되어야하며 특히 中央政府의 권한중 地方政府에 이양해야 하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
 - 外國人投資誘致 촉진제도

라. 地方의 國際化 推進을 위한 支援體制構築

- 地方自治體에서 國際化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력알선, 地方公務員의 해외근무알선 등 지방의 국제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해외정보 및 국제관련사항을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行政組織 구성
 - 日本에서는 외무부에 국내홍보과, 자치성에 國際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외무부의 국내홍보과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협력관계를 지원하고, 自治省의 國際室은 地方公務員의 해외연수, 주민의 외국어 교육 등 지자체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지자체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自治體 國際化協會」를 결성하여 해외정보, 인재양성 및 어학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4. 地方의 國際化를 위한 地方政府의 과제

가. 住民의 國際化意識 提高와 專門人力の 양성

- 地方의 국제화 성패는 지역주민의 국제화 의식정도에 달려 있는바, 住民의 國際化意識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地方에서 국제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방 공무원의 자세전환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國家戰略 차원에서 中央과의 협의(内部)를 전제로 지방도시와 외국도시와의 자매관계(정보교류, 인사교류 등) 등을 結緣·配分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방대학의 지역연구센터 및 연수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정보관리 및 인력면에서 국제화 능력을 배양

나. 國際化를 推進할 수 있는 行政組織의 편성

- 광역자치단체(市·道) 수준에서 國際化를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구성

다. 地域産業構造 高度化 및 外國人投資促進

- 既存의 地方企業의 기술고도화를 유도하고 外國人投資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地方産業의 육성을 통한 地域經濟活性化 방안을 모색.
 - 지방의 특성에 따른 독자적인 국제화추진전략 및 방향수립
 - 지방산업의 고도화와 국내외기업의 유치방안모색
 - 지방기업의 기술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센터 설립

VI. 世界化·地方化時代의 産業政策方向

- 以下에서는 世界經濟의 국경없는 單一經濟로의 통합화 진전과 정보 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産業政策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 經濟理論에 의하면,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專門化·大型化를 촉진시키게 되는 반면, 情報通信技術의 발달에 따른 경제활동간의 연계의 강화는 경제활동의 兼業 및 多角化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음.
- 이러한 經濟與件變化에 따라 기업들은 專門化와 多角化를 활발히 추구함으로써 經濟構造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것으로 전망되지만, 政府는 정보의 부족으로 미래의 經濟·産業組織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전망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정부주도하에 구체적인 산업구조에 대한 靑寫眞을 모색하려하기 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競爭을 통해 보다 效率的인 靑寫眞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기업경영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정책의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
-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業種專門化”라든가 “大型化”라는 정책목표도 앞으로 민

간주도에 의한 經濟·産業組織의 自生的 구조조정방향에 역행하게 될 우려가 높음.

- 따라서 기업의 業種專門化를 강제로 유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이 適正多角化를 추구할 수 있도록 市場與件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 예컨대, 財閥에 대한 정책의 경우도, 經濟理論에 의하면 소위 財閥의 지나친 “문어발식” 業種多角化가 근본적으로는 狹小한 國內市場規模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適正多角化와 專門化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의 대외개방을 통한 시장규모의 확대와 경쟁품종의 조성 등 시장여건의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合理的인 정책임.

- 결론적으로, 앞으로 대두될 세계시장의 統合化 진전과 情報通信産業의 高度化에 따라 經濟·産業構造의 調整方向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 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産業政策의 기본방향도, 정부보다는 민간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구체적인 經濟·産業組織의 最適 構造가 모색될 수 있도록, 기업의 經營與件을 보다 자유롭게 개선하는 데 두어져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각 地方이 國內는 물론 海外의 우수기업들을 지역내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에 산업정책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배려를 하는 것도 앞으로의 國際化·地方化時代의 産業政策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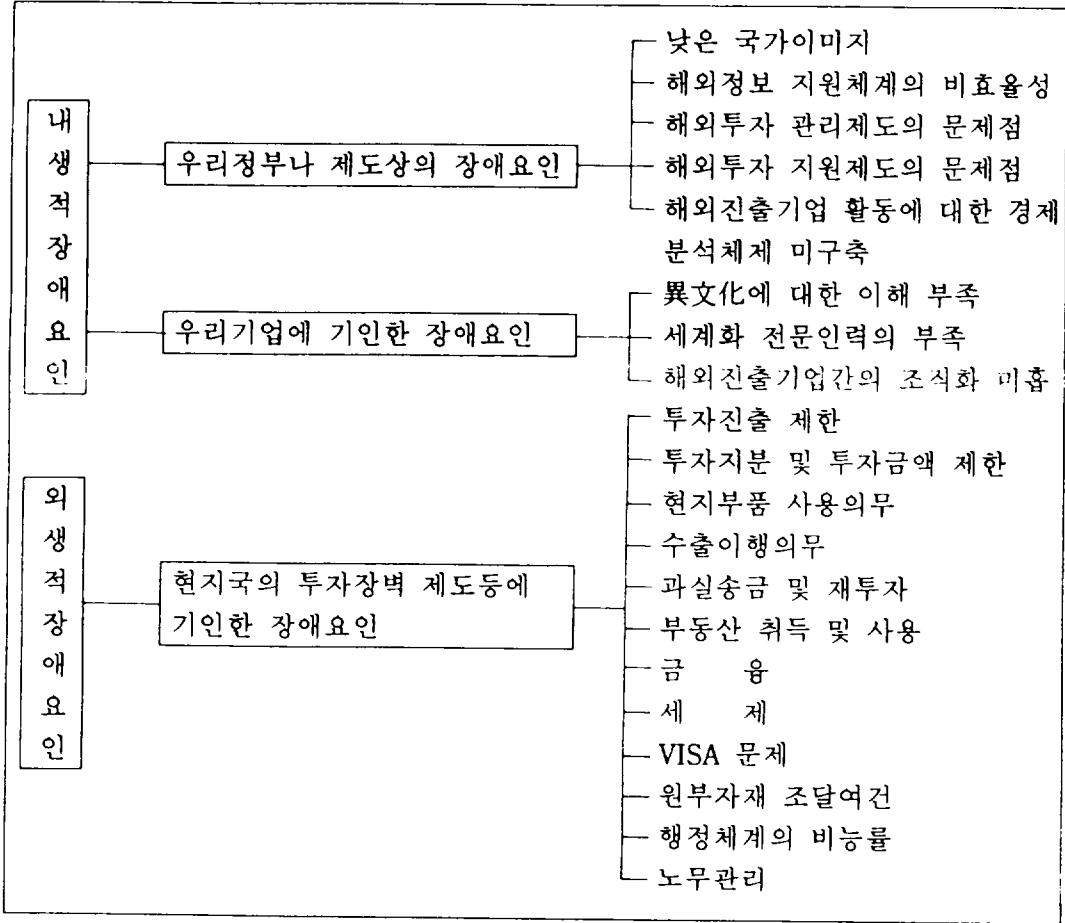
라. 優秀資源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 도외거주 숙련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국제비즈니스센터」개념의 현실화와 활성화를 통해 특히 서비스부문에 국제수준의 유능한 인력들이 常住하도록 여건조성
- 투자자금의 도내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본격실시에 맞추어 도내 금융자율화방안 모색

2. 제주기업의 경영세계화를 위한 지원체제정비

- 국내외 기업정보 공급망 확충
 -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상공회의소)등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 기업경영정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지원체제강화
- 민관합동으로 「제주도기업세계화 지원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도내기업의 세계화전략을 구상추진
 - 특히 도내 진출 대기업인들의 참여를 장려
- 해외시장개척 및 진출이 중소기업들에게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개척노력을 배가
 - 해외 자매시·도체제를 확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참고〉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화 장애요인



출처 : 기업세계화지원기획단 「21세기 기업세계화의 장기비전 및 전략」(要約)

1994. 12. 4